만선슬로프 위에서 질주한다

27일 무주덕유산리조트서 GPS CUP 산악자전거 대회

2022 GPS CUP 전국산악자전거대회가 오는 27일부터 1박2일간 국내 최고 산악자전거(MTB) 코스를 자랑하는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개최된다.

'2022 GPS CUP 전국산악자전거대회'가 오는 27일부터 1박2일간 국내 최고 산악자전거(MTB) 코스를 자랑하는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개최된다.

2020년 5월 이후 2년 만에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국내 MTB 동호인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회 종목은 크로스컨트리올림픽(XCO), 크로스컨트리릴레이(XCR), 다운힐(DH), 슈퍼다운힐(SD), e-MTB 챌린지(e-CH)까지 5가지 종목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e-MTB 챌린지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전기자전거의 저변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자들은 종목별로 1Km에서 4.5km까지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만선슬로프에 조성된 다이내믹한 코스를 질주하며 경기를 치르게 된다.

20일과 21일에는 본 경기 참가선수들을 위해 종목별로 시간을 나눠 참가 선수들에게 경기 코스 숙지와 적응을 위해 코스를 개방한다.

덕유산리조트는 대회 기간 선수와 갤러리들을 위해 객실 내부를 새롭게 단장한 가족호텔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리조트 관계자는 "본 대회를 위해 더욱 다이내믹하고 스릴 넘치는 코스 조성에 최선을 다했다. 대회의 성공적인 진행과 참가자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안심하고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320-7000)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이 지난달 영국 윔블던 14세부 남자단식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려 월드컵 스타로 거듭난 조세혁 선수와 그의 아버지 조성규 전북테니스협회 전무이사를 16일 초청해 격려했다.

"꿈나무들의 훌륭한 본보기로"

최경식 남원시장, 윔블던 14세부 챔피언 조세혁 선수 격려

남원시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지난달 영국 윔블던 14세부 남자단식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려 월드컵 스타로 거듭난 조세혁 선수와 그의 아버지 조성규 전북테니스협회 전무이사를 16일 초청해 격려했다고 밝혔다.

조 군은 현재 아시아테니스연맹 14세 이하 남자선수 1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올해 첫 신설된 영국 윔블던대회 14세부 남자단식 우승에 이어 프랑스와 독일에서 열린 주니어 대회까지 우승하면서 스포츠의 고장 남원을 세계에 알렸다.

관계자에 따르면 조 선수는 내년부터 연간 6개월 이상을 해외에 머물면서 20개 이상의 국제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세계 주니어랭킹 150위 목표를 달성한 후 4대 그랜드슬램대회에 출전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앞으로 더 많은 우승을 통해 남원을 알리고, 전북을 알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며, 자라나는 꿈나무 어린선수들의 본보기가 되는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내년 포항에서 만나요'… 군산서 전국해양스포츠대전 성료

요트 · 핀수영 · 철인3종 등 펼쳐 잦은 호우 속 사고 없이 대회 진행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스포츠 행사인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15일 폐막식을 끝으로 4일간의 열전을 마감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와 군산시,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주관한 이번 제전은 '바다에서 희망을! 군산에서 미래를!'이라는 슬로건으로 비응항, 새만금오토캠핑장, 은파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제전에서는 정식종목인 요트, 핀수영, 카누, 철인3종경기와 번외종목인 바다수영, 비치발리볼, 드래곤보트, 고무보트, 조정 경기가 개최되어 다채로운 해양스포츠의 진수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해양문화경연(바다엽서그리기, 바다사랑오행시), 해양어드벤처, 동력·무동력 해상체험과 공예체험(캔들·부채·디퓨저·무드등 만들기), 특산품 판매 등 축제 분위기를 한껏 낼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와 장윤정, 노라조, 최성수, 요요미 등 가수들의 개·폐회식 축하공연, 밴드공연, 줌바댄스, 발리댄스, 난타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들이 제공됐다.

제전 기간 잦은 비에도 불구하고 한 건의 사고 없이 대회가 진행됐으며, 참가선수단 4,000여명을 포함해 대회기간 중 3만여명이 군산을 방문하고 머물면서 지역의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이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의 특수를 톡톡히 누리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번 제전은 15일 오후 5시 비응공원 야외무대에서 내년 제16회 제전 개최지인 포항시에 대회기를 인계함으로써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한편 2023년에 열리는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포항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진안 유소년 승마단,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 입상 '실력 입증'

진안군 용담승마클럽 유소년 승마단(대표 이영래)이 지난 12일~14일 3일간에 걸쳐 치러진 제38회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면서 실력을 입증했다.

전북 장수승마장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는 2022년도 대한승마협회에 등록된 선수들이 경기에 참여했으며, 지난 대회에 이어 용담승마클럽 유소년 승마단은 장애물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특히 이번 대회는 용담승마클럽 유소년승마단 출신인 박소진(안천고) 선수도 고등부로 같이 출전해 3위를 기록해 용담승마클럽 유소년 승마단의 위상을 높였다.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물-60cm (고교) 박소진(안천고) 3위
▲장애물-60cm (통합) 김하음(안천중) 1위
김재훈(안천중) 2위
▲장애물-60cm (유소년 포니) 김하음(안천중) 2위

/진안=우태만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 소프트테니스 전지훈련 선수단 격려

대구은행, 전국체전 목표로 훈련 중

순창군 최영일 군수는 지난 12일 순창군에 전지훈련차 방문한 대구은행 소프트테니스 선수단을 찾아 소통과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대구은행 소프트테니스팀(감독 조경수)은 총 9명(지도자 1, 선수8)으로 이달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하계훈련차 순창을 방문했다.

대구은행팀은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를 목표로 하계 기간 동안 기량을 닦아 좋은 성적을 내고자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임하는 중이다.

최영일 군수는 대구은행 전지훈련팀에게 "하계훈련지로 순창을 선택해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무더위 속에서도 훈련에 매진하며 흘린 땀과 노력이 꼭 좋은 성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격려와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불편사항 등을 청취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 보강 등 아낌없는 지원으로 소프트테니스의 메카로의 입지를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에서는 매년 소프트테니스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에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올해 중 23개 소프트테니스 전지훈련팀이 순창을 방문했으며, 현재 기준 4개 소프트테니스 전국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군은 이후에도 5개 대회를 유치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기자

손 씻기 ·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하세요.